



국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요율·관행 등 손봐야
08

metro®

Life

한진그룹
창립 80주년 맞아
‘VISION 2045’ 선포
L1



1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과 정원.
2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내에서 바라본 인왕산 전경.
3다채로운 초화류로 꾸며진 단
지 내 정원.
4단지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손진영 기자 son@

도심 속 펼쳐진 입체정원 숲과 주거의 경계를 허물다

아파트의 미학(美學)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올해 6월부터 시작해 이제 입주가 마무리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은 흥제천에 마음을 뺏기며 걷다보면 왼편으로 어느새 단지 입구가 나타난다. 서울 도심 속 숨겨진 보석이라는 말답게 생태하천인 흥제천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노닐고 오리가 떠다니고 있었다. 흥제천 수변 산책로를 쫓 따라가면 한강까지 눈 스톱으로 이어진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흥은13구역 재개발로 조성된 단지다. 지상 최고 15층에 총 827세대 규모로 들어섰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별로는 ▲49㎡타입 7세대 ▲59㎡타입 238세대 ▲75㎡타입 23세대 ▲

북한산 자연경관 뛰어난 주거단지
지형 경사지 입체적으로 설계해
단지 이용한 힐가든·산책로 조성

다채로운 초화류·잔디로 정원 꾸며
옹벽과 녹지 연결해 휴식공간으로
홍제 수변공원과 이어진 산책로도

84㎡타입 117세대 ▲테라스 하우스 설계가 적용된 84㎡타입 24세대 등 총 409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됐다.

내부순환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서울 주요 간선도로를 탈 수 있다. 지하철역은 다소 멀지만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흥제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아래쪽으로 포방터 시장을 비롯해 상업시설과 행정기관 등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도 좋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입지 자체가 도심 속 자연이다. 바로 뒤편으로 북한산이 위치하고, 전면으로는 인왕산과 안산을 마주하고 있다. 북한산 둘레길을 이용하면 백련산까지 숲세권이 확장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단지가 자연경관과 어울려 숲과 주거의 경계를 허물도록 설계했다. 북한산의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해 15층 높이의 중층 주거단지로 구현했고, 어우러지는 단지 배치를 통해 인왕산과 안산의 전경까지 바라볼 수 있다.

단지 뒤편을 산이 감싸고 있다면 그만큼 단지 자체가 오르막 경사지일 터.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형의 단차를 입체적인 설계로 오히려 장점으로 바꾸

었다. 테라스 하우스는 경사지를 활용했고, 부대시설도 대지 단차를 이용했다. 고저차를 시각적 리듬으로 풀었내 단지 어디에서든 자연과 맞닿은 수평적 조망을 감상할 수 있다. 단지 내에서는 동선이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로 갈라지고, 북한산 방향으로의 조망이 열려 시야가 확 트인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조경면적은 총 1만697㎡로 전체 부지의 30%에 달한다. 조경 역시 지형의 단차를 적극 활용해 입체적으로 설계되어 계단형 힐가든과 순환 산책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단지 내부로 들어서면 웰컴그린을 시작으로 엘리가든, 사인힐가든, 계단식화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엘리가든은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과 연결된 선형 정원이다. 옹벽과 녹지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며, 휴식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사인힐가든은단지 중심부에 잔디광장 형식으로 구성됐다. 다채로운 초화류와 잔디가 펼쳐져 휴식은 물론 모임의 공간으로도 좋다.

단지의 고저차를 이용해 조성된 힐가든은 층단형 공간이다. 단순히 이동을 위한 길이 아닌 보행로 곳곳에 '스테이션(Stay Zone)' 개념을 적용해 잠시 머물러 교류할 수 있도록 각 레벨마다 정원, 벤치, 전망 포인트가 놓여져 있다.

조경은 자연감상용에 그치지 않는다. 단지 내 산책로는 흥제천 수변공원과 맞닿아 달리기와 자전거 등 일상 운동까지 확장되도록 했다. 곳곳에 설치된 휴게 정자와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등은 가족 단위 활동에도 최적화되어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내 놀이터.